

# 산적한 제주현안, 해결책은 댐뿌

### 20대 마지막 국감 오늘 종료... 중앙 관심 끌어낸 계기 2공항 갈등·4·3특별법 지지부진 등 현주소 그대로 투영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제주 현안에 대한 중앙의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된 반면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도 그대로 보여줬다.

국감 기간 동안 제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감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시찰에 나섰다.

지난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공론화가 도마에 올랐다. 상당수 의원들이 제2공항 추진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 국토부의 정책 추진에도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농민들의 숙원인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표명이 있었다. 농해수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성과도 거뒀다.

제주도 국감이 진행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위성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 태풍 길목인 제주의 전선지중화의 필요성을 환기 시켰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은 행안부 국감에서 진영 장관으로부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현안 해결에 역부족인 도정에 답

답해하는 도민들은 국감이 열리는 도정을 찾아 제주 현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토위가 제주도정을 찾았을 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들이 '제2공항 철폐' 피켓을 들고 나섰고, 농해수위의 제주도 국감 날엔 긴 농민들이 상복을 입고 '태풍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피켓을 들었다. 국방위원회가 강정마을을 찾았을 때는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이 유엔사의 기지방문 목적 해명을 촉구했다.

국감 이후 제주 현안들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 임기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제주 현안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반쪽 관심이 아닌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장애등급 폐지 ‘복지사각’ 현실... 대책 시급”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요양원 성추행 솜방망이 징계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겨우에도 승진 인사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제주의료원 산하 제주도립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지난 18일 열린 제3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고태순 위원장 김경미 의원 고현수 의원

보건복지여성공과 제주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고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은 전성태 행정부지사

를 상대로 “제주도 1급에서 4급 공무원 정원은 109명인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4급 서기관 1명”이라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승진에서 확대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사회복지직이 승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에 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제주도가 복지서비스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립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 사건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과 관련해 “이건 위계에 의한 폭력인데 감봉 3개월로 끝나는 거냐”며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마을 공동체 붕괴... 행정, 갈등 해소해야”

## 행정자치위원회

### 마을향약 표준안 마련 제안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마을향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을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운영규약(향약) 표준안 마련 대책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속개된 제주시 행정사무



현길호 의원

감사에서 “오래되고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마을향약 조항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행정이 나서야 한다”며 마을운영규약 표준안 마련을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의원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마을갈등을 겪는 선흘2리는 현재 이장이 있지만, 반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다”며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역민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흘2리 마을 갈등으로 인해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가 사라지고 있다”며 “행정이 나서서 마을단위갈등을 해결하고 제주 사회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국회가 적극 나서야”

### 국회 국방위, 해군기지 시찰 강정마을회와 비공식 간담 반대주민회, 정문 피켓시위



국정감사중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제주해군기지 시찰이 진행된 18일 오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관계자들이 기지 정문 앞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유엔군사령부 관계자의 기지 방문 목적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지난 18일 제주해군기지 현장시찰에 나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 등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은 제주해군기지 현장시찰이 이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제주해군기지 김영관 센터에서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대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해군기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날 오후 12시쯤 강정마을회관을 방문해 강희봉 강정마을회장과 강성철 마을기업추진위원장 등 마을 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강정마을회 등은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유린 등 문제와 관련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진심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행정대집행 비용 철회,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등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은 이날

국방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앞서 제주해군기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했다”며 “국방위는 국정감사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해군기지를 방문한 목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이날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해 해군으로부터 민군상생활동 등 업무보고를 듣고 독도함과 서예류성룡함 등을 시찰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 “이중섭미술관 대표작품 한 점 없어서야...”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전문관장 필요성에 한 목소리

이중섭미술관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서귀포시의 대표적 문화자산이지만 정작 이중섭 대표작품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흥·대륜동)가 지난 18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에 대표작품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관람객



이경용 위원장 문종태 의원

규모 등 위상을 감안할 때 전문관장 제 도입 필요성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1996년 이중섭거리가 지정되고, 2002년 이중섭미술관 개관 당시 2만5000명이던 관람객이 지난해 26만5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미술관이 소장한 이중섭

작품 45점 중 대부분은 기증받은 것으로 은지화, 엽서화 위주”라며 “5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중섭 대표작품 한 점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태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중섭의 대표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관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관람객도 2~3배 증가할 것”이라며 “대표작품 확보에 도의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이중섭미술관보다 관람객 규모가 적은 다른지역 미술관들은 4~5급상당의 관장을 두고 있다. 이중섭미술관이 안되면 서귀포시 3개 공립미술관 통합관장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제7회 구좌중앙초등학교 총동문회 어울림 한마당

역새꽃 넘실대는 들녘 장관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선후배와 재학생이 함께하는 제7회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19년 10월 27일(일) 10:00

■ 장 소 : 구좌중앙초등학교 운동장

■ 주최·주관 : 구좌중앙초등학교 총동문회

※ 연락처 : 회장 강창협 010-3691-2336, 총무부회장 고태연 010-6283-2761

구좌중앙초등학교총동문회 회장 강 창 협

## 제28회 성산고등학교 총동문가족 한마당 큰잔치

바다의 뭇 생명이 자라나고, 굴림추색의 질어가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70년전인 1949년 개교 이래 스물여덟번째 치러지는 제28회 성산고등학교 총동문가족 한마당 큰잔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함께 참석하시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시어 바랍니다.

**아 래**

■ 행사명 : 제28회 성산고등학교 총동문가족 한마당큰잔치

■ 일 시 : 2019년 11월 3일(일), 개회식 오전 10시

■ 주최 및 주관 : 성산고등학교 총동문회

○ 체육행사  
- 족구, 씨름, 줄다리기, 여자승부차기, 왕웃놀이, 제기차기

○ 번외경기 및 부대행사  
- 골프, 서예, 모교관광대 연주

■ 연 락 처 : 회 장 오태곤 010-6661-0075  
총무부회장 한석중 010-9696-1828  
집행위원장 양만길 010-3696-2697

성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오 태 곤

## 제3회 애월고등학교 제37회 동창회 모교사랑 장학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가을을 맞아 애월고등학교 제37회 동창회에서 주최하는 「모교사랑 장학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어느덧 세 번째 후원의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9년 10월 26일(토) 오전 11시 ~ 오후 7시

■ 장 소 : 한라수목원부페(제주시 수목원길 65-6)

■ 주 최 : 애월고등학교 제37회 동창회

■ 후 원 : 애월고등학교 총동창회

■ 연락처 : 회장 김형진 010-2696-3069  
총무 강윤정 010-6660-7535

애월고등학교 제37회 동창회 회장 김 형 진